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가속도

휴양시설·골프장 조성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오는 29일까지 공모 관광·도시계획·토목·건축 등

광주시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평가심의위원 공모에 나서는 등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33명을 공모해 인력풀을 구성한 뒤 평가심의위원 11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분야는 개발계획, 사업수행 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 계획 등이다.

전문가 모집 분야는 관광, 도시계획, 토목, 건축, 환경, 교통, 재무, 법무, 지역개발, 주민지원, 시설운영, 관광마케팅 등이다.

신청 자격 요건은 대학 전임강사(조

교수)·연구기관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해당 분야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해당 평가대상(제안)과 관련해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했거나 이해당사자, 당 평가대상 업체 재직자 등은 제외 대상이다.

지난달 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냈다.

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어등산 골프장이 중심에 있는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에 민간자본 3천400억원을 투입, 각종 유원지와 휴양 시설·호텔·골프장·경관녹지 등을 조성하

는 프로젝트다.

불발탄 제거, 경기불황, 민간업체 자금난, 공공시설 개발부담에 따른 수익성 결여 등으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전혀 진척이 없다.

광주시는 지난 10여 년간 담보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개하고자 민관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중소상인 단체와 합의안을 마련했다.

상가시설 면적은 2만4천170㎡ 이하로 제한하나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제한사항을 최소화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6월 중순까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사업 적정성 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한국민화뮤지엄 전경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서 민화 특별展

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은 오는 6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두 달간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에서 ‘한국의 현대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과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 초청으로 열린다.

전시에는 민수회 소속 작가 3명이 참여한다. 민수회는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한민국민화대전과 조선민화박물관이 주최하는 전국민화공모전의 역대 수상자들의 모임이다.

전시는 현대 민화의 세 갈래인 재현민화, 창작민화, 민화공예 세 분야로 나누

어 진행된다.

참여 작가들은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해 현지인들에게 민화를 가르치고 알리는 자리도 마련한다.

오석환 한국민화뮤지엄 관장은 “카자흐스탄에서 민화 전시가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이번 전시가 전통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민화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회 가입 자격을 판가름하는 한국민화뮤지엄의 대한민국민화대전은 6월1일부터 12일까지, 조선민화박물관의 전국민화공모전은 8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남 강진=김남중 기자

대축제 앞두고 ‘음식·숙박업’ 특별 위생점검

보성군, 민간 합동단속반 편성 숙박업 20곳·음식점 300곳 점검



보성군 담당 공무원들이 음식점 주방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보성군은 오는 18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44회 보성다향대축제를 앞두고 관내 음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위생점검은 축제기간 중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절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보성 구현을 위해 추진됐다.

군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숙박업소 20개소와 음식점 300여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음식 위생 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식재료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객실 및 침구류, 욕실, 화장실 청결상태 ▲객실 소독여부 및

안전한 음용수 제공여부 ▲숙박요금표 게시 및 부당여부 징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친절서비스 실천, 식중독 예방, 음식 재사용 금지 등 현지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 및 시정조치 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압류폐기 및 행정처분을 통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제기간에도 상항유지 등 각종 위생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

해남군 수산물 위판장, 유통거점으로

전남 해남군 수산물 위판장이 지역 수산물 유통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문을 연 수산물 위판장은 13일까지 3억 8000여만 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해남산 낙지를 비롯해 주꾸미, 문어, 갑오징어, 돌게 등 수산물을 경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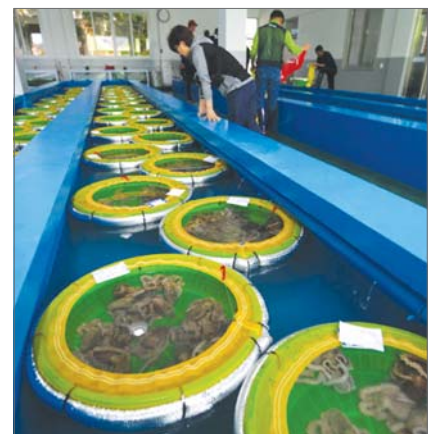
특히 해남산 낙지는 9만5606마리, 위판액 3억7500여만원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다면 연간 위판액 40억 원을 넘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송지와 북평, 북일 등 땅끝 일원은 물론 황산, 화산 등 해남 전역에서 낙지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해남산 낙지 가격은 상품 한 마리 평균 8716원, 최고가는 1만원을 넘는 등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해남산 낙지는 연간 200여톤 생산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인 집하를 통해 판매돼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타지산이 해남산으로 둔갑하는 등 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남군은 올해 9천만원을 들여 군내 3개소에 낙지 산란장을 조성한다.



지난 4월 초 개장한 해남군 수산물 위판장이 지역 수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낙지자원 조성은 산란 전 어미 낙지를 자연 상태로 방사해 낙지 생산량을 늘리고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5~6월 중 화산 중정, 북평 와룡·오산 등 3개 어촌계에 어미 낙지 3천마리를 방생한다.

어미낙지 1마리당 평균 100개 정도의 알을 가지고 있어 감소하는 낙지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 해남=김남중 기자



보성군 광주·전남 교원 환경성질환 직무연수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광주·전남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시작된 직무연수는 오는 8월까지 각 회차별로 30명씩 총 7회에 걸쳐 친환경적인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마음 채우기라는 주제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

육, 기초검진 및 상담, 도형심리, 올바른 걷기의 이해 및 실천, 원예를 이용한 치유, 힐링요가 등 이론과 체험 교육이 병행하여 실시된다.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광주·전남 교육연수원이 지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이다.

센터와 숙박동 모두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져 환경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함평군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전남 함평군보건소는 6월3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지를 특별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소는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파종과 밀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을 비롯한 4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지정돼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함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곳을 발견하면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김남중 기자

목포항 대불부두 3개 선석 민간업체 위탁

전남 목포항 대불부두 3개 선석을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대불부두 운영회사 선정 심사 결과 제61선석은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가칭 대불항만, 제62선석은 CJ대한통운, 제65선석은 세방을 각각 선정했다.

대불부두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철재 관련 화물을 주로 취급했지만, 조선경기 침체로 2016년부터 물동량이 급격히 줄었다.

목포해양청은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불부두 공

용 2개 선석과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신규 선석 등 총 3선석 부두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부두운영회사(TOC)제를 도입했다.

김평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대불 공용부두 및 신규부두를 TOC부두로 전환해 침체한 목포항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대불부두가 대불산업단지의 대외 교역 거점항만으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김남중 기자